

종합·해설

“대회 2주앞 검수 위험 F1 성공개최 걱정된다”

버니 에클레스톤 F1 매니지먼트 회장 우려 표시

10월 22일 국내 최초로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를 앞두고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서킷(회차·경주용 트랙) 최종 검수 일자가 다음달 11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최종 검수의 경우 예정된 첫 국제 경기가 열리기 9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FIA의 '모터레이스 서킷 공인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애초 계획된 검수 일정이 대회 개최를 10여일 남겨둔 시점으로 변경되면서 성공 개최를 우려하는 외국 언론들의 비판적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다고 하니 그 얘기가 맞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에클레스톤 회장은 그동안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해 줄곧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그의 이번 발언은 한국 그랑프리에 대한 국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처음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SPN도 이날 '에클레스톤,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깊은 우려 표시'(Ecclestone, admits to concerns over Korea GP)'라는 기사에서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해 변함없이 긍정적인 그가 처음 열리는 한국 그랑프리에 대한 국내외 깊은 우려(serious concerns)를 인정했다"고 썼다.

이 신문은 그러나 그는 "(신생 대회에 대한) 걱정은 늘 있어왔다"면서 "(한국) 대회 준비에 행운이 따라 성공적으로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다음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영암군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다.

7월을 한국에 보내 현재까지 포장된 서킷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표층 포장공사를 10월 8~9일까지 마무리하고 11일 이전에 검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해진 검수 일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대회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버니 에클레스톤(Bernie Ecclestone·사진) F1 매니지먼트(FOM) 회장이 26일 싱가포르에서 BBC 등의 신들과 인터뷰에서 "좋지 않다(It's not good), 6주전에 검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대회를 2주 앞두고 검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quite dangerous). 우리가 대회를 취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문이다(it's a question of do we cancel the race or not?). 그런데 KAVO에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영암 서킷 검수 내달 11일로 연기

알렉산드라 시렌(Alexandra Schieren) FIA 언론담당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F1 코리아 그랑프리 영암 서킷의 최종 검수는 10월 11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FIA의 활리 화이팅 기술대표가 담당하게 된다.

F1 대회 운영법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도 27일 "10월 11일 이전에 경기장 검수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일본 대회가 10월 10일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11일에 검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애초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최종 검수는 추석 연휴 등이 겹치면서 28일~29일경로 일정이 조정되는 듯 하더니 급기야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전남도 F1조직위원회는 이와 관련, "FIA측이 이달 말 FIA 기술엔지니어



싱가포르 F1 알론소 1위 질주

26일 열린 싱가포르 포뮬러원(F1) 그랑프리 대회에서 페라리팀의 드라이버 페르난도 알론소가 1위로 트랙을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저하게 검증” “정치공세 그만” 김항식 총리 후보 내일 인사청문회

김항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2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철저한 검증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여당은 의혹 부풀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규영 의원은 27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김항식 후보자에 대해 현재는 적격, 부적격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일할 것이고 이것은 야당의 책무"라며 "박주기식 청문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입

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있었지만 명확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며 "병역 면제에 대해서도 '진료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한 건도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진료기록 등의 핵심자료들을 먼저 제출하라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흥지명입니다'에 출연,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

는 의혹들은 역시 의혹이나 최소분대형 의혹 부풀리기가 많다"며 "이런 정치적 공세는 구세 정치의 전형으로써 공정한 사회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 면제에 대해서도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곧 제출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정말 부동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짐작해서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김항식 감사원장 취임 이후 대통령령 의혹 부풀리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김 원장이 청와대에 보고한 횡수는 2009년 35회, 2010년 26회로 총 61차례에 달하는 등 김 총리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년 동안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달에 2.5회로 대통령령의 외국순방기간, 휴가기간 등을 감안하면 1주일에 한 번꼴로 보고를 올린 셈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F1 성공기원 만화작품 전시회 전남도청 만화동아리

전남도가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만화작품전시회를 개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는 27일 "순수 아마추어 만화작가들로 구성된 전남도청 만화동아리회가 F1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전시회를 다음달 1일까지 도청 윤선도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사진)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F1대회 성공 개최를 바라는 만화를 비롯, F1 로고를 담은 셔츠나 텀바지, 22개 시·군 캐릭터를 형상화한 작품, 엑스포 로고 등 도청과 관련된 다양한 190여점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지난해 결성된 전남도청 만화동아리회는 모두 50명의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한 핸드페인팅 티셔츠 판매금액 전액은 도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최주희 만화동아리회장은 "요즘 행정에 있어서도 브랜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만화전시전은 전남의 최대 현안인 F1을 지혜롭게 홍보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만의 독창적인 도시재생 방안 찾아라 광주시 '도시재생 추진단' 발족

광주시가 28일 광주시·각 자치구·광주도시공사 등의 직원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추진단'을 발족시킨다. 각 기관별·실과별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종합화·체계화시켜 지역 특성을 감안한 모범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추진단은 광주시, 5개 자치구와 광주도시공사 간 유기적 추진체계를 통해 도시재생 기획·검토 단계에서부터 상호협력하고 추진방향

을 공유하기 위해 구성됐다. 광주시 도시디자인국장과 도시공사사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시·자치구·도시공사의 해당부서 팀원 40여 명이 구성된다. 또 추진단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민간업체의 참여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돼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이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자원 및 수의구조가 없어 추진단의 업무가 기존 정

책이나 사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도시재생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이 이미 수립됐거나 수립중인 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을 어떠한 방향에서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공기

관 도시재생에 나선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며, 추진단이 기존의 사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내·외 사례를 참조해 광주만의 독창적인 도시재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거, 문화, 복지, 일터가 어우러진 창조적 도시재생을 목표로 조례 제정, 사업비확보 등 행정·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검토와 논의를 거쳐 우선 추진할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d@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0-79호

『2010년도 광주 자동차부품 기업지원서비스사업(마케팅지원)』 지원대상 기업 모집공고

- 지역산업진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자동차부품 기업지원서비스사업』에 따른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의 시장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 신제품 개발과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위해 2010년도 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0년 9월 17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KOTRA 사장,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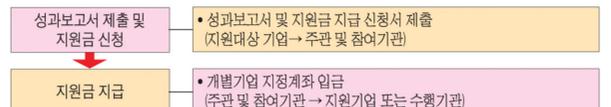
1.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 소재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체
- 지원제의 대상은 제6항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사업별 세부 지원계획

지원사업명	지 원 내 용	지 원 규 모	담 당 기 관
○ 인준 획득 및 특허출원 지원	- 해외 인준 및 특허가 없어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인준획득 및 특허·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광주 테크노파크
○ 기술성·사업성 평가지원	-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보유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권리분석 등을 평가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신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1기업당 최대 20,000천원	
○ 기업 맞춤형 마케팅 활동 지원	-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후 사후 수출 상담을 목적으로 기업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세일즈 촉출, 통번역서비스 등에 대한 제안 비용 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 수출기업 전자무역 지원	- 수출입 통관, 관세 등 관련 사항을 전자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지원	1기업당 최대 1,000천원	KOTRA
○ 시장 및 마케팅 환경 조사·분석지원	- 기업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타겟 시장 조사 및 마케팅 환경 조사·분석 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사업명	지 원 내 용	지 원 규 모	담 당 기 관
○ 해외시장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 고객별 타겟 시장을 선정, 해외시장조사·분석에서부터 해외마케팅활동까지 통합솔루션 지원	1기업당 최대 20,000천원	KOTRA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국내외 자동차 관련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인원차비, 장차비, 운송비, 통역지원 등)	1기업당 최대 10,000천원	
○ 맞춤형 미니 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 기업별 동일 해외 타겟 시장에 대해 소규모 형태의 시장개척 활동 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김대중 컨벤션센터
○ 2010 국제 그린카 전시회 참가 지원	- 2010 국제그린카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및 수출 상담회 등 부대행사 참가 지원	1기업당 최대 3,000천원	
○ 디자인 마케팅 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 타겟 시장별 기업 및 제품의 디자인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	1기업당 최대 3,000천원	광주 디자인센터
○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제품디자인 개발 및 3D렌더링 파일 등 제작 지원	1기업당 최대 12,000천원	
○ 바이어 비즈니스 비주요 디자인 지원	- 홍보물 디자인 및 PT 자료 디자인 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3.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선정방법 :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
- 우대사항 : -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를 신청하였거나 준비 중인 기업
- 해외 바이어 등 거래처와 거래 실적에 있는 기업
-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 기업 현금부담이 많은 기업(광주TP 지원사업에 한함)
- 2010년 광주TP 시행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지원대상 기업

5. 제출서류 접수 및 안내

- 신청접수기간 : 2010. 9. 17 ~ 2010. 10. 8
-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gjtp.or.kr>)
- 접 수 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부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대촌동 958-3) 본부동 1층

6.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제2항의 지원사업 중 1개 이상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최대 40,000천원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지역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사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해지 조치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기관별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사업비는 평가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jtp.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